

하이트, PET병맥주 가격인상 “곤혹”

PET칩 및 환경부담금 이유 7.9% 인상 ... 원가상승 압박 2.6% 불과

하이트맥주가 출시 6개월만에 PET병 맥주 출고가를 7.9% 올린 것을 놓고 무리한 인상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주 가격인상 요인으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병 환경처리 부담 가중과 포장재료비 증가를 들고 있지만 2가지 모두 7.9% 인상안을 떠받치기에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맥주는 PET병 맥주 출고가를 1.6리터병당 3188원에서 3440원으로 7.9%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주 요인 중 하나로 PET병 환경처리비용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재활용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가 2004년 한해동안 한국PET병재활용협회(KOPRA)에 지불해야 할 PET병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은 고작 15억원에 불과하다.

하이트맥주와 OB맥주 양사는 2004년 3월 출고량의 72%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PET병 1kg당 330원의 재활용 비용을 지급키로 KOPRA와 합의했다. 당초 양사는 kg당 278원을 제시했으나 KOPRA의 반대로 18.7% 늘어난 kg당 330원 선에서 절충됐다.

따라서 하이트맥주가 PET병 맥주 가격인상 요인으로 제시한 환경처리비용 증액분은 한해 비용 15억원의 18.7%인 2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억8000만원은 하이트맥주의 2004년 PET병 맥주 순매출(1600억원 추정)의 0.18%로 거의 무시해도 괜찮은 수준이다.

하이트맥주는 또한 PET병, 산소 흡수용 스캐빈저 캡, 포장박스 등의 제조원가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트맥주가 주장하는 최대 인상요인은 PET병의 원재료인 PET Bottle용 Chip 수입가격이 2003년 11월 출고 당시에 비해 20% 가량 올랐다는 것이지만, PET 수입가격 상승분이 출고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트맥주의 PET병 맥주 출고원가는 원래 1.6리터병당 1260원이었던 것이 최근 1359원으로 올랐다. PET병 맥주 출고원가 가운데 원재료비를 포함한 PET병 제조비용은 약 22%로 병당 300원 정도이다.

50%(OB맥주와 비슷한 수준)를 원재료 값으로 본다 해도 PET Bottle용 Chip 수입비용은 병당 150원이고, PET Bottle용 Chip 수입가격이 20% 상승했다는 것은 병당 30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추가 부담금 30원은 출고원가(인상 전 병당 1260원) 대비 2.4%에 불과하다.

출고원가는 원료비, 포장재료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모든 제조·판매비용에 기업의 마진(수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출고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순매출이다.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주세 등 제세금을 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이트맥주가 주장하는 인상요인 중 가장 큰 2가지, 즉 PET병 환경처리비 증가(0.18%)와 PET Bottle용 Chip 수입가격 상승(2.4%)을 더해도 전체 출고원가에 미치는 상승 압박은 2.6%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7.9% 인상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가격인상으로 하이트맥주는 PET병 맥주 병당 99원의 순수익을 더 챙기게 됐다. 1년으로 수익 증가분은 무려 630억원(2003년 순매출 8000억원 기준)에 달한다.

<화학저널 2004/05/06>